
碩士學位請求論文

*The Rainbow*에 나타난
탈인성적 사랑

指導教授 梁 永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玲

1996年 8月

*The Rainbow*에 나타난
탈인성적 사랑

指導教授 梁 永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玲



金 玲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年 7月 日

審査委員長 梁 永 洙
審査委員 梁 永 洙
審査委員 金 仙 姬

The Rainbow에 나타난 탈인성적 사랑

金 玲

濟洲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로렌스의 대표작 『무지개』는 남녀간의 창조적인 애정관계의 모색을 통해 현대 사회의 기계적, 물질적 사고방식으로 야기되는 인간소의 현상에 경종을 울려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의 사랑 체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육체적 사랑의 절정에서 자연의 질서와 동일해지고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자아실현 의지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경험이 된다. “탈인성적(impersonal)”이라는 용어를 본 논문에서는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이라는 의미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이러한 탈인성적인 차원의 애정관계에서는 개인적 사랑의 체험이 우주적인 생명력과 동질적인 것으로 승화되고, 자연현상과 개인의 심리작용이 동일한 질서의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볼 것이다.

1세대의 톰과 리디아는 자연과의 교감을 잃지않고 그 생명력에 바탕을 둔 사랑을 함으로써 탈인성적 차원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2세대의 애나와 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어긋난 형태의 사랑을 하게 된다. 3세대의 어슐라는 스크레벤스키가 현대 산업문명사회의 기계적 사고에 젖어 본능적인 모습을 부정하고, 사랑까지도 물질적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의 제한적 시각을 넘어 창조적 자아의식으로 따로 서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로렌스는 남녀의 애정관계라는 인간의 원초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통해 현대인이 빠져 있는 기계문명사회라는 궁지에서 제기되는 삶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8
1. 마주보기 ; 자연과 일치되는 사랑	8
2. 어긋나기 ; 자기 안에 갇힌 사랑	21
3. 따로보기 ; 현대문명 속에서 왜곡되는 사랑	34
III. 결론	49
Bibliography	53
Abstract	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론

로렌스(D.H. Lawrence 1885-1930)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다른 각도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바라보고,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이 인간내면의 무의식 세계까지 일깨울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남녀간의 애정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다 거대한 우주적이고 탈인성적인 차원에서의 질서 속에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간의 애정심리에 대한 로렌스의 남달리 심각한 해석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엘리엇(T.S. Eliot)는 로렌스를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라고 칭하고 따라서 그의 작품은 예술적 객관화에 이르지 못하고 개인의 체험을 생경하게 노출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평한 바 있다.¹⁾ 그의 지적대로 과연 로렌스의 작품은 그 자신의 체험에서 출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가 목표한 것은 개인의 체험을 기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우주적이고 탈인성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도구로 삼아, 남녀의 애정관계를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자기 확대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있었다.

그의 대표작 『무지개』(*The Rainbow*)는 남녀간의 애정행위를 탈인성적인 차원에서 심화시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는 1914년 편집자 가네트(Edward Garnett)에게 보낸 편지²⁾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종전의 소설에서와 같은 안정된 '자아'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

1) Mark Spilka, *D.H. Lawren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Inc., 1963), p.2.

2) H.T. Moore (ed.),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New York, 1962, vol.1, p.282.

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공통된 한 요소를 뽑아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다이아몬드나 숯검정은 서로 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탄소라는 공통된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 개체적인 것 보다는 그 배후의 근본적인 질서를 더 중시하는 로렌스의 주장이다. 다이아몬드나 숯검정과 같은 개체적인 생명현상의 배후에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원리에 주목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인성적 또는 개체적(personal)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탈인성적 또는 우주적인(impersonal)차원에서 만나야 한다는 그의 애정관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There is another ego, according to whose action the individual is unrecognisable, and passes through, as it were, allotropic states which it needs a deeper sense than any we've been used to exercise, to discover are states of the same single radically unchanged element.³⁾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작중의 남녀 주인공들은 그들의 진정한 애정관계를 통하여 우주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이때, 탈인성적 질서라든가 우주적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감정이 함께 호흡하는 상태로 이러한 순간의 남녀는 각자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는 자기 초월과, 사랑의 극치를 경험하게 된다. 즉, 탈인성적인 애정관계 속에서 만난 남녀는 우주 속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표단수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며 이들은 각자가 남성원리, 여성원리라는 생명원리를, 비록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인성적인 애정관계”라는 용어는 로렌스 자신이 명확한 개념규정을 해

3) *Ibid.* p.282.

본 일이 없고, 그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impersonal”이라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의미가 불확정적인 “탈인성적 (impersonal)”이라는 용어를 본 논문에서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이라는 의미로 규정하여 사용하려는 이유는 로렌스적인 애정관계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관점이 바로 개인 차원을 넘어선 우주적인 질서의 표현으로서의 남녀간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탈인성적인 차원의 애정관계에서는 개인적 사랑의 체험이 우주적인 생명력과 동질적인 것으로 승화되고, 자연현상과 개인의 심리작용이 동일한 질서의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탈인성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무지개』에 나타난 애정관계를 고찰하려고 하는 것도 로렌스적인 애정관이나 문명비판 안목의 진면목은 개인적인 체험이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정도가 곧 진정한 양성관계의 시금석이라는 이 작가 특유의 관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녀 주인공들이 보편적인 우주 질서로서의 남성원리, 여성원리에 따름으로써 그 개체성을 초월해서 우주와의 일체감을 맛보는 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로렌스에게 있어서 모든 생명체가 개체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남성 대 여성사이의 투쟁이며, 따라서 양성간의 투쟁이야말로 우주적인 생명력 발현의 기본 조건이 되고, 남녀간의 사랑은 인간의 생명력이 표현되는 가장 강렬한 형태가 된다.

로렌스는 남녀의 사랑의 순간을 ‘왕관을 놓고 그 아래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자와 일각수’의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사자와 일각수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승리는 결국 공동의 패배라는 논리로 남녀관계의 본질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남녀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을 강요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둘의 관계 발전에 해가 되어 절반의 실패는 바로 두 사람 모두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 때, 이들 머리위의 왕관은 승

리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 아니라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각자의 한계를 초월해서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적 합일을 의미한다. 로렌스적인 양성간의 투쟁의 생명원리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에세이 "The Crown" 이다.

And there is no rest, no cessation from the conflict.
For we are two opposites which exist by virtue of our
inter-opposition. Remove the opposition and there is
collapse, a sudden crumbling into universal nothingness. 4)

로렌스는 남녀의 사랑이 개인의 인간적 체험과 삶의 의의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녀의 결합은 완성과 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출발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무한의 가능성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둘은 그 가운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새롭고 완벽한 존재로 탄생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확대의 궁극에 탈인성적 사랑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와 다른 자아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개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개체를 초월한 우주적인 질서 속에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맺음을 통한 자기 확대의 욕구를 심도있게 다룬 에세이집인 *Fantasia of the Unconscious &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에서 그는, 태아가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생명력을 얻듯이 자발적인 자아가 외부의 다른 자아들과 교류함으로써 무한한 자기확대의 창조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4) D. H. Lawrence, "The Crown", *A Selection from Phoenix*, ed. by A.A.H. Inglis (Penguin, 1971) p.368

The actual evolution of the individual psyche i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outer universe. This is a law of life and creation, from which we cannot escape.⁵⁾

자신의 존재됨을 완성하는 것(to be oneself)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 자기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은 서로에게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어 개인의 한계를 넘어 무한의 가능성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인간은 이를 통해 고립의 위험을 극복하고, 존재불안을 해소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리비스(F.R. Leavis)는 『무지개』의 주인공 남녀들의 애정관계를 미지의 세계로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각자의 개체적 한계를 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Either love is for the other a 'door'; an opening into 'the unknown', by which the horizon, the space of life, is immensely expanded, and unaccepted limits that had seemed final are transgressed...⁶⁾

김정매 교수도, 로렌스의 애정관의 특징을 탈인성적인 자기확대 체험과 관련하여 해석하면서, 인간의 일상적 자아외에 무의식의 세계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자아가 남녀간의 사랑의 순간에 드러나 우주적인 생명력과 같이 호흡하는 자기 초월의 경험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애정욕

5) D.H. Lawrence, *Fantasia of the Unconscious &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Penguin, 1977) p.246.

6) F.R. Leavis, *D.H. Lawrence: Novelist* (Penguin, 1973), p.138.

구 속에 내재하는 탈인성적인 승화의 측면에 관심을 두어, 인간이 개성과 인성을 벗어나 자연과 동소체적 상태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재래의 소설에 나오는 일관된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 '동소체의 상태'(allotropic state), 즉 '불변하는 단 하나의 원소'의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에 내재하는 생명력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내부에 있어서, 그 능력의 발현은 곧 새로운 자아의 발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제한된 의식의 소유자인 인간이 구식의 일관성 있는 자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아를 지니고 있어서, 이 다른 자아를 통해서 의식의 제한성을 넘어서 인간이 거대한 자연 세계와 연결되고 통합되고 동일적임을 나타낸다.⁷⁾

양영수 교수는 '탈인성적 사랑'에 대해 남녀 개개인의 성질이나 특성을 초월해 인간 본연의 생명력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는 로렌스적인 '동소체적 상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탈인성적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사랑 체험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과거 경험이나 소속집단 같은 것을 불문에 부침으로써 사랑 행위의 영속성과 절대성을 지켜준다.⁸⁾

한편, 본 논문에서 「무지개」의 3대에 걸친 여러 주인공들의 애정양상을 분석하는 일은 문명비판적인 의미도 그 속에 함축하고 있다. 제 1대의 틈

7) 김정매, 「어둠의 불꽃-로렌스 문학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p.47

8) 양영수, 「D.H. Lawrence의 「사랑하는 여인들」에 나타난 현대문명비판」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9집, 1994) p.454.

(Tom)과 리디아(Lydia), 제 2대의 애나(Anna)와 윌(Will), 그리고 제 3대의 어슐라(Ursula)와 스크레벤스키(Skrebensky)의 애정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탈인 성적 사랑'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남녀간 애정의 시대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 사이의 '탈인 성적 사랑'이 부랭원(Brangwen)가의 3대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구현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람살이의 달라진 걸모습 가운데에서도 불변하는 요소인 '탄소'의 추출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톰과 리디아가 자연의 생명력과 교감하면서 이룬 사랑은 지식과 물질이 중시되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윌과 애나에게서는 점점 드물게 나타나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해간다. 어슐라는 스크레벤스키와의 어긋난 사랑의 문제점을 깨닫기까지 창조적인 인간 관계를 이루기 위해 갈등과 방황을 겪게 된다. 그녀가 무지개를 보고 희망을 얻는 것은 탈인 성적 사랑을 이루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II. 본론

1. 마주보기 ; 자연과 일치되는 사랑

로렌스는 「무지개」의 서두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전원 생활의 정취에 대하여 매우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부랭원 집안 사람들은 마아쉬(Marsh) 농장에서 자연의 호흡을 느끼며 그 생명력의 일부가 되어 살아왔다. 대지가 부풀어 올라 밭고랑을 만들고 바람이 불어 젖은 밀을 말려주며, 덜 익은 밀이삭을 여물게 하는 움직임들 통해 그들은 천지간에 충만한 우주의 생명력을 감지하고 있다. 또, 새끼 낳는 암소의 진통을 지켜보는 부랭원가 농부들은 생명 탄생의 기쁨과 죽음의 고통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대지 위의 짐승이나 초목 같은 것들의 생명 에너지가 자기들 땀속에까지 용솟음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생명의 파동을 느끼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대자연의 숨결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비와 햇빛이 대지에 스미는 순간 부랭원 집안 농부들의 몸에도 생기가 피어올라 싱그러운 생명의 빛을 뿜어내는 모습은, 인간의 생활과 자연이 동일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이른바 탈인성적 사랑의 바탕이 어떠한 것인지를 매우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They felt the rush of the sap in spring, they knew the wave which cannot halt, but every year throws forward the seed to begetting, and, falling back, leaves the young-born on the earth. They knew the intercourse

between heaven and earth, sunshine drawn into the breast
and bowels, the rain sucked up in the daytime, nakedness
that comes under the wind in autumn, showing the birds'
nests no longer worth hiding.⁹⁾

부랭원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들의 바깥 세계에 대한 관심과 자기 발전 욕구가 남자들에 비해 더욱 높았다는 점은 로렌스 사상의 여성 숭배적인 경향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롭다. 그들 눈빛에는 무언가 미지의 일을 기다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듯한 표정이 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일종의 확신처럼 몸에 배어 있다. 그들은 대자연 속에서의 노동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바깥 세상의 창조적인 삶에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 아이들에게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이 새로운 존재형태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유도한다.

부랭원집안 사람들의 자연과 교감하는 생활리듬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인물이 바로 톰이다. 어머니의 바램대로 학교에 들어간 톰은 애초부터 자신이 학교에서 열등생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본능적인 감정은 일찍부터 발달하여 주위 아이들의 기계적인 생활방식을 증오하고 멸시할 만큼 섬세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 그는 주위의 분위기에 민감하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이지적인 면에서 둔감한 자신의 한계를 의식할 정도로 겸손하다. 문학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낭송하는 셸리(P.B. Shelley)의 “서풍부”(Ode to the West Wind)에 크게 감동하여 책을 들고 앉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킬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

항상 자신의 실패와 무능을 자각하고 있었던 학교시절 동안 그가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도 건강하고 낙천적인 인간이며 원초적인 생명력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그가 학교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9) D.H. Lawrence, *The Rainbow* (Penguin, 1979) pp.7-8. 앞으로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한 것임.

돌아온 후,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과 함께 육체노동과 흙냄새를 즐기는 농장 생활이 그에게 인생에 대한 정열을 느끼게 해 준다. 그가 거리의 여자와 육체 관계를 맺고 지독한 허무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꽃피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게 있어 남녀의 사랑은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드는 강렬한 체험이어야 하고, 보다 고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툼이 길에서 리디아를 처음 보았을 때, '바로 이 여자야.'(That's her.)라고 느낀 순간은 자신의 오랜 욕구가 충족되리라는 예감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상대방을 정직하게 인식한 때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의식은 각자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 보다 큰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성실히 그 생명력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리비스에 의하면 이 장면은 혼한 연애 소설의 '첫눈에 반했다'식의 처리가 아니라, '작가가 인간 욕구의 실체와 그 본성을 이해하는데 탁월했음'(Lawrence sees what the needs are, and understands their nature.)¹⁰⁾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리디아는 폴란드의 애국운동에 헌신했던 의사의 미망인으로 그녀 자신도 교육과 사회계층에 있어서 톼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를 자신의 부속물 썸으로 여겨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에 무관심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두 아이마저 잃은 리디아는 그늘에서 겁에 질린 채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국으로 건너온 후 남편이 죽자 그녀는 해방감을 느끼며, 시골 자연 속에서 자기 영혼의 껍질을 깨고 본래적인 생명력을 서서히 되찾게 된다.

툼은 자연에 뿌리박은 생명력으로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며, 마치 죽었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나듯 건강한 자아를 되찾게 해준다. 그러나 한편 그는 그녀의 낯선 과거와 우월성에 위축되며 그녀 뒤에 놓인 미지의 세계

10) F.R. Leavis, p.132.

를 막연히 예감하고 단절감을 느낀다. 그들은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아주 다른 가치관과 모습을 지녔지만, 그들 내부의 생명력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통해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여주는 문이 되며, 그림으로써 그들의 결합은 단편적인 삶을 넘어 완성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성취해내고 있다.

But during the long February nights with the ewes in labour, looking out from the shelter into the flashing stars, he knew he did not belong to himself. He must admit that he was only fragmentary, something incomplete and subject. There were the stars in the dark heaven travelling, the whole host passing by on some eternal voyage. So he sat small and submissive to the greater ordering. (p.40)

툼은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저녁 불현듯 리디아에게 구혼하러 가야 할 순간이 되었다고 느낀다. 이것은 의식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당위의 문제요, 바꿔 말하면 거대한 힘에 의해 이끌리듯 행해지는 순리의 행위이다. 달레스키(H.M. Daleski)는 이 장면과 이어진 결혼까지의 톼과 리디아의 행동을 두고, 로렌스의 주인공들이 반이성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통해 탈인성적이면서 동시에 개체성을 지닌 매개체(acting as an impersonal but articulate intermediary)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표면으로 이끌어 낸다(to evolve the stream of half-consciousness)고 했다.¹¹⁾ 이 순간 자연은 톼의 심리 상태와도 같이 바람이 몹시 불고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 된다.

11) H.M. Daleski, *The Forked Flame*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87), p.77.

이날 저녁 톰이 마당으로 수선화를 꺾으러 간 순간에도, 바람은 능금나무에 불고 있고, 노란 수선화들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통통하고 이지러질 듯한 수선화 줄기를 꺾으려고 몸을 굽히자 긴 잎새 끝이 속삭이는 소리마저 들린다. 그가 언덕을 올라 목사관으로 가는 동안 바람은 생울타리 사이로 불어오고 있으며, 그는 수선화 다발을 잘 간수하려고 애쓰면서 머리 속에는 오직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목사관에 도착한 톰이 그녀의 부엌 창 밖의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옮겨 놓는 순간에도 톰은 그의 등 뒤에서 나무들을 맹렬히 흔드는 바람결처럼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는 불가항력적으로 따라야 할 숙명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우주적 질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애정욕구의 원동력은 개인적이기 보다는 탈인성적이고 우주적인 생명력에서 나온다. 이에 우리는 로렌스의 애정관 속에서 거의 종교적인 경건성마저 감지할 수 있다. 즉 톰이 구혼의 말을 했을 때,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흐르고 지고의 진실과 맞닥뜨린 이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발견하고 새롭게 탄생한다.

And as he watched the fire, he knew almost without thinking that he was going this evening. ...Then, being ready, as grey twilight was falling, he went across to the orchard to gather the daffodils. ... He did not think of anything, only knew that the wind was blowing. ... The wind boomed strongly. (pp.42-43)

리디아와의 첫번 입맞춤 속에서 톰을 휩쓸던 '비옥한 어둠'(the fecund

darkness)은 그가 그녀를 안고 있을때 두 사람이 느꼈던 탈인성적인 무의식 세계의 작용으로, 그녀의 영혼에서 울려 퍼진 자연의 생명력의 발현이다. 그들은 자궁 속에서 새로운 잉태와 탄생을 겪은 뒤처럼 발랄하고 신선하게 창조의 기쁨에 떨고 있다. 그것은 일상적 자아 너머에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데, 로렌스의 용어로 표현하면, '비개성적, 생리적, 물질적'(inhumanly, physiologically, materially)인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존재영역이다.¹²⁾ 작가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톰은 리디아에게 청혼을 할 때 미사여구가 제거된 평범하고 담담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말이 필요없는 영역, 즉 보다 큰 차원의 우주적 생명력을 두 사람이 충실히 나타내는 순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결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를 원하느냐'는 대답은 두 사람의 의혹에 종지부를 찍는, 간결하지만 충분한 고백으로 볼 수 있다.

로렌스는 톰의 결혼식을 예수의 겟세마네(Gethsemane)수난에 비유함으로써 그의 결혼이 갖는 초월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야 하는 예수의 고통스러운 운명이, 어둠과 미지의 존재인 리디아 앞에 선 톰의 고민과 경건함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겟세마네가 예수의 고난이면서 부활의 영광을 예고한 것처럼, 톰의 결혼 역시 그의 시련인 동시에 개선문이기도 했다. 그는 현실의 결혼, 즉 적나라한 모습으로 구차한 부분까지 드러내야 하는 결혼의 실상을 생각하고 괴로워 한다. 그는 리디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낯설고 남남이었다.

그러나 톰은 리디아의 이 '어둠'(darkness)과 '미지'(the unknown)의 세

12) Colin Clarke, *D.H. Lawrence: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69), pp.28-29.

계를 마치 주어진 운명이나 자연법칙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충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톰은 그녀를 안고 있을 때, 과거와 미래에서 해방되어, 아내와 함께 현재의 순간에 일체가 되어 표면적인 이질성을 극복하고, 원소적인 포옹 속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라기 보다는, 보다 확대된 의미의 자연의 의지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생명원리가 남녀관계에 조화롭게 작용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And he let himself go from past and future, was reduced to the moment with her. In which he took her and was with her and there was nothing beyond, they were together in an elemental embrace beyond their superficial foreignness. And he seemed to live thus in contact with her, in contact with the unknown, the unaccountable and incalculable. (p.59)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나자 톰은 리디아의 낯선 경험과 이질감에 주눅들게 되고 그러한 그녀에게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이는 그가 자신과 그녀의 '다름'(otherness)을 인정하기까지의 자기 인식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톰은 리디아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과 외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삶은 바로 그녀와의 관계 속에, 또한 그 속에서 얻어지는 미지의 힘과의 유대 속에 있는 것이다.

리디아가 아기를 갖게 되자 톰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돌게 되지만 그녀가 언젠가는 자기를 다시 찾을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지는 않는다. 그들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리디아가 데려온 딸 애나가 톰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톰은 애나에게서 위안을 얻고 그 아이에게 농장의 동물들을 보여주고, 장에도 데려 가면서 점차 아이

다운 모습을 찾도록 도와준다. 애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억누르던 엄마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되어 명랑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며, 의붓 아버지인 톰에게서는 따뜻한 애정과 확신에 찬 자신감을 얻는다.

리디아가 아기를 갖고 침잠해 있는 동안, 다른 식구들이나 계절마저도 함께 그 우울을 짊어지고 있는 듯이 묘사되고 있는 장면을 보자. 동짓달에 접어들고 낙엽이 덧문에 우수수 부딪쳐, 리디아와 톰이 동시에 놀라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간, 그들의 단절이 모처럼의 같은 감정으로 회복되는 듯 하지만, 이내 아내는 침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톰은 바람 속에 쓸려 다니는 낙엽의 존재가 마치 아내와 동떨어져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그는 자신이 기둥을 잃고 비참하게 허물어진 아취같이 생각되고, 아내의 무반응에 극도의 긴장감으로 자신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일년 중 가장 우울한 계절이 온다. 애나는 초조해지고 무엇에 억압당한 듯이 한숨을 지으며 이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톰은 우울하게 일을 계속하지만 가슴은 젖은 대지처럼 무겁다. 식구들은 모두 긴장과 억압 속에 싸여서 방안에만 박혀 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정월의 음산하게 찬 날씨는 단조롭게 계속된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 푸른 하늘이 빛나고 온갖 새들이 부산스럽게 울 때, 톰은 수정같은 아침공기를 뚫고 밖으로 나간다. 그는 의기양양해져서 아내가 쌀쌀하건 슬피하건, 자신이 아내와 같이 있고 싶건 말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기는 맑은 소리를 울리며, 하늘은 수정같이 투명하고, 대지는 단단하다. 그는 다시 일을 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그의 내부에서는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 올라서, 소생하는 자연의 움직임을 느끼며 생기를 되찾게 된다. 그는 일순간 아내는 아내요, 나는 나대로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서쪽 하늘에 장미빛 노을이 환히 떠오르고, 차차 자주색과 청록색으로 변해 가면서, 동녘에는 커다란 달이 무겁게 걸려 황황해지자,

나중에 올 고통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의식 밑바닥에 눌러 두었던 아내, 아내의 고통, 진통에 관한 걱정이었다.

리디아의 산고가 계속되는 동안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 속에서 애나와 톰이 외양간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면서 평정을 되찾게 되는 장면이 있다. 밖은 비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이고 둘의 마음 속에도 그에 못지않은 초조감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점차 평화로운 짐승들 틈에서 부녀는 안정을 되찾고 리디아의 고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시름없고 확고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평화를 느낀 것도 자연의 생명력이 갖는 회복력 때문이다.

And the two sat still listening to the snuffing and breathing of cows feeding in the sheds communicating with this small barn. The lantern shed a soft, steady light from one wall. All outside was still in the rain. He looked down at the silky folds of the paisely shawl. It reminded him of his mother. She used to go to church in it. He was back again in the old irresponsibility and security, a boy at home. (p.79)

이제 톰은 리디아의 산고를 지켜보는 동안 생명의 역사성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인식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그는 남녀의 사랑이 이룩할 수 있는 무한의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즉 그들은 톰, 리디아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인 생명력을 대표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우주적 질서 속에 동참하는 탈인성적 사랑을 이루어낸다. 리디아는 자신에게 아이를 갖게 한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시선으로 톰을 보며 그들의 사랑이 의미하는 창조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 순간 톰은 무한으로 확대되는 위대한 평화를 체험하며, 세상의 삶 외에 영원불변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동질성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혼치 않은 장면이며, 로렌

스의 작가적 시각은 이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남녀간의 애정이 내포하는 창조성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She was beautiful to him - but it was not human ...
What had she to do with him? She was other than
himself. ... She did not know him as himself. But she
knew him as the man. She looked at him as a woman in
childbirth looks at the man who begot the child in her:
an impersonal look, in extreme hour, female to male.(p.81)

툼과 리디아는 결혼 생활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완벽한 균형이 가져오는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 결합의 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창조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새로운 우주를 열어 보여주는 문이 되어 각자의 새로운 존재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확고하고도 자유로운 평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She was doorway to him, he to her. At last they had
thrown open the doors, each to the other, and had stood
in the doorways facing each other, whilst the light flooded
out from behind on to each of their faces, it was the
transfiguration, the glorification, the admission. (p.96)

이렇게 우주적 생명원리를 체험했던 톼의 죽음은 리디아로 하여금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해 한다. 톼이 홍수에 휩쓸려 가던 밤은 인간 존재의 절대 고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생명을 부여해 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개체의 생명은 성장

하고 소멸하며 삶과 죽음은 하나의 생명체 안에 공존한다. 모든 생명체들은 대지 아래에 있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간다.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은 끊임없는 창조과정의 일부로서 반드시 소멸, 즉 죽음을 요구한다. 따라서 죽음은 재생의 전제가 된다. 톰의 죽음에 동물들이 반응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의 마감이 아니라 개체의 소멸을 넘어서서 보다 더 큰 의미의 자연의 생명원리에 따르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리디아는 그의 죽음을 감지하고 깨어나는데, 이것은 둘 사이의 유대가 가져온 교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e utter darkness, the unconscious, drowning body was rolled along, the water pouring, washing, filling in the place. The cattle woke up and rose to their feet, the dog began to yelp. And the unconscious, drowning body was washed along in the black, swirling darkness, passively. Mrs Brangwen woke up and listened. With preternaturally sharp senses she heard the movement of all the darkness that swirled outside. She knew her husband was outside. (p.247)

톰의 죽음을 맞닥뜨린 리디아는, 그가 무한의 세계로 갔으며 그곳은 인간의 지식과 변화 너머에 존재하는 절대적 세계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그의 존재는 삶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말해주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신'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리디아는 인식한다. 이것은 개인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차원으로 확대되는 순간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마주한 인간이 절대절명의 존재고독을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He was beyond change or knowledge, absolute, laid in

line with the infinite. What had she to do with him? He was a majestic Abstraction, made visible now for a moment, inviolate absolute. And who could lay claim to him, who could speak of him, of the him who was revealed in the stripped moment of transit from life into death? Neither the living nor the dead could claim him, he was both the one and the other, inviolable, inaccessibly himself. 'I shared life with you, I belong in my own way to eternity,' said Lydia Brangwen, her heart cold, knowing her own singleness. (p.251)

리디아가 톰의 죽음앞에서 '무한과 하나됨'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창조적 자아 실현의 출발점이 된다. 개인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존재이며 이를 통해 개체성(individuality)을 지냄으로써 그 존재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 절대적 독립성 위에 사랑의 의지(will of love)¹³⁾가 발현될 때 창조적인 애정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랑의 의지란 슈나이더(Daniel Schneider)의 말을 빌리자면, 권력의 의지와 함께 인간 내부에 공존하는 것으로, 남녀의 사랑의 순간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무의식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능에 충실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간직한 의지이기 때문에, 리디아의 개체성은 이 의지의 발현을 이끌어 내어 탈인성적 사랑을 이루는 필수적인 바탕요소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인식은 다음 세대의 남녀관계 모색에 착실한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인류 전체로 보아 톰의 생명은 살아남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 사회의 충만한 자연과 가까이 살아온 1세대의 톰은 안정된 뿌리의 식에 바탕을 둔 따뜻한 생명력으로 리디아의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

13) Daniel Schneider, *D.H. Lawrence; The Artist as Psychologist* (Kansas: University of Kansas, 1984), p.62.

리디아의 지적인 우월성과 낯선 경험에 대해 톰이 느끼는 위축감이 자기 확대 욕구로 발전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는 그녀의 독립된 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그들이 이룩하는 사랑의 순간은 상대방의 전 존재를 자신의 온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며 톰과 리디아는 이 합일의 상태로 보다 큰 우주적인 질서 속으로 승화되는 탈인성적 사랑을 완전하게 구현한다.



2. 어긋나기; 자기 안에 갇힌 사랑

로렌스가 말하는 창조적 남녀관계는 그 관계의 발전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편견과 상대방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노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나와 윌의 관계는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의 과정을 포기하고 각자의 한계안에 머물러버린 예이다. 창조적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 하고, 이 추진력으로 상대방의 낯선 세계를 마주해야하는 것인데, 제2세대의 두 사람은 스스로의 허위의식이나 안일함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 안에 안주하여 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애나는 어머니를 책임지고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자 자기자리를 찾고 안정되어,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는 작은 영혼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곧 톰을 따르게 되는데, 그녀의 일종의 무관심한 태도는 톰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어리고 하찮은 존재처럼 대한다. 애나의 악의없는 우월감은 학교에 가서도 계속되어 부모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지독히 자기 중심적이라 바깥 세상에는 무관심하다. 그녀는 수줍어하는 한편 야수같은 냉담함을 갖고 있다.

노팅엄의 여학교에 들어가서 그녀가 동경하던 소위 고상한 아가씨들을 만나지만 그들이 사소한 일에 일일이 물어뜯고, 자기들 식대로 그녀를 대하자 곧 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자신이 옳은지 바깥 세상이 옳은지 혼란스러워지고 세상의 허위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그녀에게는 집안만이 편안한 장소지만 여전히 그녀의 관심은 바깥에 있다. 그녀는 머리는 좋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학습준비나 학업 성취도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사의 권위에 반항한다. 그녀의 이상은 소소한 속박을 벗고 사소한 생각을 초월하여 사는, 자유와 자궁이 있는 여인이 되는 것으로 변해간다.

종교는 그녀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말의 나열과 허위에 불과하지만, 강력하고 긴밀한 부모의 폐쇄된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교회에도 나간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세계에 본능적으로 반발한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더욱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창가에서 서성거리고만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사촌인 월이 등장하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기다려 왔던 '신의 아들(Son of God)'의 환상을 보게 된다. 이는 교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묘사하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머리위 색 유리창에서 흘러들어온 빛이 미지의 힘으로 두 사람을 환하게 하고 그 환한 빛과 그들 속에서 영혼까지 풍성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 때 그녀에게 들어온 미지의 힘은 서로를 끌어 당겨 결합할 수 있게 하는 무의식의 세계, 즉 어둠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다.

월은 애나에게 있어 미지의 세계로 향한 탈출구이고, 그녀 역시 그에게 어둠의 알 수 없는 정열을 경험하게 해준 존재이다. 그녀가 그를 기다린 것은 그를 통해서 자기 경험의 한계를 넘어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바깥 세계를 느끼고 싶어서이다. 월에게 애나와의 접촉은 어떤 특정한 여자와의 접촉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둠에서 나온 정열에 이끌려 자기 존재를 송두리째 드러내는 종교적 체험이다. 그들은 육체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탄소의 상태"¹⁴⁾에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표면적인 차이와 생각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결합의 상태에서 존재의 일치를 느끼는 회열을 의미하나, 그들의 관계는 이 육체적 만족의 경험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친다.

Anna was wanting him to come. In him she had escaped. In him the bounds of her experience were transgressed: he was the hole in the wall, beyond which

14) Yudhishtar, *Conflict in the Novels of D.H. Lawrence*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69), p.131

‘남가리 쌓는 장면’의 묘사는 달빛이 환히 비치는 가운데 반복되는 남녀의 움직임으로, 그들 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둥근 황금색 달이 회색 지평선에 무겁게 걸리고, 수목들은 이 두 사람을 기다리는 듯 어둠 속에 우뚝우뚝 서 있다. 천지는 온통 하얀 은색이고 둘러선 나무들은 전진하라는 신호를 기다리는 전령들처럼 보인다. 몽롱한 수정같은 이 공간 속에서 애나는 심장이 종처럼 울리고 그 소리가 밖에서 들릴까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한 줄씩 말아 보리 다발을 나르고, 그것들을 내려 놓을 때 나는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소리만이 이 순간의 유일한 소리다. 달과 남자의 그림자 사이를 오가며 여자는 곡식단을 나르고, 남자 역시 그러한 리듬 속에서 일에 열중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두 사람은 차츰 그리고 확실하게 상대를 의식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을 비추는 달빛과, 가을 남가리가 가득한 들판과 모두 동질적이어서 총체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이 대목은 ‘기묘한 나선형의 리듬’¹⁵⁾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세계와 탈인성적인 세계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핵심을 향해 움직이며 움켜조이는 방법의 반복에서 오는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을 굽히고, 다발을 들어 올리고, 상대방이 있는 몽롱한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다. 그리고는 받고랑을 따라 다발을 들고 간다. 좀 망설이다가 다발을 내려 놓고, 보리가 버석거리며 부딪치는 소리가 나면 상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제 한 쪽은 물러가야 한다. 또 다시 가슴을 환히 비추는 달빛 속으로. 월이 와서 보면 애나는 항상 가버리고 없다. 그가 오면 여자가 물러가고, 그가 물러가면 여자는 왔다.

한 절정이 되는 장면을 향하여 처음에는 천천히, 다음에는 집요하게 접근

15) 김정매, p.51.

하여, 목표가 된 장면에 이르면 같은 묘사를 조금씩 수정, 변화시켜 자주 반복 하며, 무시간의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확대와 발전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 로렌스는 작품 중에서 특히 범상적인 인간의 의식세계 너머에 있는 탈인 성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묘사할 때 새로운 언어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묘사의 반복, 어떤 절정을 향해서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서고 또 다시 접근하는 식의, 파도를 연상케 하는 특징적인 문체이다.

이 장면에서는 낱말, 어구, 장면, 행동, 전반적인 움직임 등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더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울동적인 월의 움직임에 한가지 맥락과 어떤 목적이 생겨난다. 그는 몸을 굽히고, 다발을 들고 여자쪽으로 가서 달빛 하늘 아래서 여자 쪽에 내려 놓고, 그리고는 다시 물러서는 행동을 점점 숨가쁘게 빨리 하면서 여자와 마주치도록 거리를 좁혀간다. 달빛 속에서 열중한 듯 오고 가며 묵묵히 몸을 흔들고 있지만 그의 다발이 떨어지는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더 가까와져서 그녀의 다발소리에 맞추어 고동치고 마침내 그들은 날가리에서 만나게 된다. 월의 팔 안에 어둠이면서 빛인 애나가 안기고 그 비밀의 전부가 드러내져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같은 말의 반복은 시간적 연쇄를 깨고, 무시간적인 상태, 변화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경지에서 갖는 의식은 변화하지 않는 원소적인 것으로, 인간의 자아가 전체적인 우주의 생명력과 일치하는 존재 확대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And ever the splash of his sheaves broke swifter,
beating up to hers, and ever the splash of sheaves
recurred monotonously, unchanging, and ever the splash
of his sheaves beat nearer. All the moonlight upon her, all
the darkness within her! All the night in his arms,
darkness and shine, he possessed of it all! All the night
for him now, to unfold, to venture within, all the mystery

to be entered, all the discovery to be made. (pp.123-124)

애나에게는 월이 '삶과 실체의 핵심' 이고, 그에게 그녀는 삶의 요체이자 그를 소진시키는 불꽃이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해 변화된 시각을 갖게 되며, 월은 바깥 세상과 분리되어 자기들만이 별개의 세계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한다. 그러나 애나는 그런 것에는 무관심하게 넘어간다. 남자는 외부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세계에 몰입하기로 하고 여자도 그의 생각과 같기를 바란다. 그의 암울함과 집착이 애나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녀의 독립성이 그에게는 적개심과 권위의 강요를 불러 일으킨다.

For her, he was the kernel of life, to touch him alone was bliss. But for him, she was the essence of life. In him, she touched the centre of reality. But to him, she was a flame that consumed him. (p.130)

그들은 신혼의 얼마동안을 꿈같은 행복과 일체감 속에서 지낸다. 시간이 나 변화의 영향을 초월하여 그들 내부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우주의 회전과 삶의 격동의 중심에서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은 영원한 삶과 순수한 광명이 있는 침묵의 세계이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우주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충만감을 느끼고, 그리하여 무한의 존재로 확대되는 '탈인성적 사랑'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것은 남녀 사이의 친밀감이 완벽한 일치를 이룬 상태로, 톰과 리디아가 서로의 '미지의 세계'에 대해 느꼈던 '외경'보다는 육체적 '만족'의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찬미와 환희의 순간이 지나자 바깥의 소란한 현실이 다가온다.

As they lay close together, complete and beyond the touch of time or change, it was as if they were at the very centre of all the slow wheeling of space and the rapid agitation of life, deep, deep inside them all, at the centre where there is utter radiance, and eternal being, and the silence absorbed in praise: the steady core of all movements, the unawakened sleep of all wakefulness. They found themselves there, and they lay still in each other's arms; for their moment they were at the heart of eternity, whilst time roared far off, forever far off, towards the rim. (p.145)

그렇게 그들의 정열은 잠시였다. 월은 아내의 영혼마저 자신의 의지아래 두려고 하지만 아나는 이에 반발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월은 아내와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들어간 무의식의 세계에 머물면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려 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창조적인 자아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내의 언저리에 매달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혼자 설 수 없는' (inability to stand alone)¹⁶⁾ 인물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어느 쪽도 완전한 만족은 느낄 수 없다. 월은 아내가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아나는 남편이 자기와 관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를 존경하고, 그 나머지 자기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그가 지성을 잠재워둔데 대해서는 혹독히 비판한다. 그는 제 자신만을 걱정하고, 인간 지성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자신의 어두운 영혼의 요구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종교에 대한 그의 집착은 무의식의 세계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의 허약함

16) F.R. Leavis, p.147.

을 교회의 절대성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사물이 지각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교회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감정의 위대한 신비감이라고 할, 어둠의 이름모를 정서이다. 그는 설교를 무시하고 제 자신의 인간적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에게는 애나와의 연결, 교회와의 연결만이 진실이요, 그의 진정한 존재는 무한 절대자인 어둠의 정서적 경험 안에 있다. 애나는 이 점에 대해 격분하는데, 그녀에게는 영혼을 사색한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색하는 것과 밀접히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나로서는 남편이 교회에서 느끼는 맹목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The verity was his connexion with Anna and his connexion with the Church, his real being lay in his dark emotional experience of the Infinite, of the Absolute. And the great mysterious, illuminated capitals to the text, were his feelings with the Church. (p.159)

월은 교회를 '그녀(her)'라고 부르며,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자궁(womb)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긴다. 그가 이 세계를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은 애나와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무의식의 세계에 계속 머무르려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가 종교의 핵심에서는 멀리 벗어난 교회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영원성만을 강조하는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교회는 그의 허위의식이 만들어 낸 환상에 불과하다. 교회는 시간을 떠나 그 바깥에 존재하며, 생명이 있기 이전의 어둠과 침묵을 지키고 씨앗처럼 놓여 있다. 그 안에서는 시작과 끝이 함께 있고, 생의 온갖 소동과 변화 너머에 있는 어둠이 있다.

월의 영혼은 영원한 황홀감에 잠긴 채 자기를 잊고 가리워진 하늘 아래 교회 지붕 속의 절망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애나는 교회 너머가 무의 세계이

며 교회가 궁극적 한계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녀에게는 더 높은 자유를 가지고 별들이 선회하는 넓은 하늘이 있고 교회 밖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의 절대자는 애나에게 있어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Away from time, always outside of time! Between east and west, between dawn and sunset, the church lay like a seed in silence, dark before germination, silenced after death. ... Here the stone leapt up from the plain of earth, leapt up in a manifold, clustered desire each time, up, away from the horizontal earth, through twilight and dusk and the whole range of desire, through the swerving, the declination, ah, to the ecstasy, the touch, to the meeting and the consummation, the meeting the clasp, the close embrace, the neutrality, the perfect, swooning consummation, the timeless ecstasy. There his soul remained, at the apex of the arch, clinched in the timeless ecstasy, consummated. (pp.201-202)

이런 세계가 절대적이라고 믿고서 몰두하고 있는 월의 환상을 애나는 여지없이 깨뜨리는데, 이는 그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월이 갖지 못한 현실감과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괴물상의 조소하는 듯한 얼굴로 교회의 세계가 제한된 세계, 현실을 외면한 세계라고 지적하면서 그의 무자아적 몰입을 비판한다. 인간 자신의 환상을 되받아치는 것 같은 이 꼬마 괴물상들은 교회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찡그리고 결눈질하는 얼굴을 통해 교회의 위대한 관념 바깥에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 결과 월은 교회에서 찾던 절대적 도피처를 잃고 자기 안의 어둠과 폭력성을 직시하게 된다. 그가 여전히 상징적으로 애착을 갖는 교회에 대해, 또 그의 이 허위에 대해 애나가 심하게 비난을 할 때, 아내에 대한 그의 분노는 그의 존재 전체를 갈갈이 찢어 버리는 것같이 강렬해진다. 그의 어둠과 혼돈된, 파괴에 대한 충동이 일종의 긴장 상태를 만들고, 이럴 때의 싸움은 무섭게 살인적이다. 그들 사이의 정열도 마찬가지로 어둠과 무서워진다. 애나는 차츰 물러서게 되고, 남편의 발작에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월은 아내에게 돌아오려고 자기 혼자 암담한 갈등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화의 과정'(purgation progress)¹⁷⁾을 통해 월과 애나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These sly little faces peeped out of the grand tide of the cathedral like something that knew better. They knew quite well, these little imps that retorted on man's own illusion, that the cathedral was not absolute. (p.204)

이후 그들의 생활은 균열을 보여 침예한 대립을 보이는데 애나의 임신으로 그것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애나는 이미 월에게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 몸 안에 있는 아기로 인해 만족감과 충실감을 느낀다. 그녀의 충족감을 보고 월은 자신이 혼자임을 직시하기가 두려워 떨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자기 안에 아직 다 익지 않은 어떤 싹, 자기 육체가 다할 때까지는 잔뜩 움크려 절대로 퍼질 것 같지 않은 어둠의 중심을 그는 알아 본 것이다. 그는 충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의 내부에 있

17) F.R. Leavis, p.100.

는 어떤 미완성이 그를 제한하며, 수평선상의 두 길을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독자적인 관계이기에 월의 이러한 존재불안이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They continued without saying any more, walking along opposite horizons, hand in hand across the intervening space, two separate people. And he trembled as if a wind blew on to him in strong gusts, out of the unseen. He was afraid. He was afraid to know he was alone. For she seemed fulfilled and separate and sufficient in her half of the world. (p.179)

애나가 만삭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향해 추는 춤은 월의 독단적 지배욕에 대항하는 그녀의 독립적 존재의식을 나타내는 동시에¹⁸⁾, 생명을 잉태하고 기쁨에 가득찬 모성이 우주적 생명력과 교감하는 희열을 보여 준다. 갑자기 애나는 자기를 선택해 준 신에게, 자신이 속하고 있는 창조주에게, 두 손을 들어 올려 춤을 춘다. 성서에 나오는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너무 기뻐서 옷을 벗은 것처럼, 그녀도 배부른 그녀의 몸을 한껏 드러내며 춤을 춘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고양과 그 표출을 월은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됨으로써, 남녀의 대등한 존재확신에 바탕을 둔, 자연에 충실한 사랑으로의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Suddenly she realized that this was what she wanted to do. Big with child as she was, she danced there in the bedroom by herself, lifting her hands and her body to the Unseen, to the unseen Creator who had chosen her, to

18) H.M. Daleski, p.98.

whom she belonged.

(p.183)

애나에게 월은 자기를 끌어당기는 짐으로 느껴지는데, 표범이 암소를 끈질기게 물어 뜯어 끝내 쓰러뜨리고 마는 것에 비유된다. 그는 자신의 자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나의 개체성(otherness)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한 그의 불안정성이 그들 관계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보다 건강한 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Gradually she realized that she was being borne down by him, borne down by the clinging, heavy weight of him, that he was pulling her down as a leopard clings to a wild cow and exhausts her and pulls her down. (p.185)

그렇다면 월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사회에 참여하여 당당하고 창조적인 몫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인물이고, 이러한 점이 애나에게는 자신이 기대했던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에 대한 불만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는 애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그녀가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위축된다. 그는 바깥 세상 사람들의 업적이나 가치관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애나와의 생활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다. 즉 월은 육체적 관계를 정신적 만족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What had he in life, save her? Nothing. The rest was a great heaving flood. The terror of the night of heaving, overwhelming flood, which was his vision of life without her, was too much for him. He clung to her

fiercely and abjectly.

He wanted to leave her, he wanted to be able to leave her. For his soul's sake, for his manhood's sake, he must be able to leave her. (pp.186-187)

한편 애나는 계속되는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여성으로서의 가정 내 생활에 안주하고 만다. 그녀는 이제 미지의 나라로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지에 도달한 풍요한 여인으로써 자신의 집에 안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녀의 집 문은 무지개의 아취밑에 걸려 있고 그 문턱은 위대한 여행자인 태양과 달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으며, 집에는 아직도 여행의 반향이 가득 차 있다. 그녀에게는 이 세계 너머의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작업은 다음 세대로 넘겨지고 그녀의 창 너머에 존재하던 무지개는 미지의 것을 갈망하는 염원을 담아 또 다른 순례자를 기다리게 된다.

If she were not the wayfarer to the unknown, if she were arrived now, settled in her builded house, a rich woman, still her doors opened under the arch of the rainbow, her threshold reflected the passing of the sun and moon, the great travellers, her house was full of the echo of journeying. (p.1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세대의 애나와 월은 육체적인 합일을 이룩하지만 상대방의 세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파괴적인 속성을 띤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는 자기 확대의 체험은 애나의 경우에만 임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만다. 이는 월의 자아가

홀로서기에 실패한 탓으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마침내 아내의 발전 욕구까지 중단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들의 애정 관계는 육체적 사랑의 단계에서 정신적 이해의 상태로 이행되지 못하고 어긋남으로써, 탈인성적 사랑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진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3. 따로보기 ; 현대문명 속에서 왜곡되는 사랑

따로보기라는 제목 속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의 세계관이 너무나 판이한데서 오는 시각차를 뜻하고, 둘째는 어슐라의 자아가 관습과 허위의식의 굴레를 벗고 마침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 두가지는 모두 어슐라의 자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스크레벤스키로 대변되는 문명화된 기계적 사고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창조적인 의식을 확보하는 어슐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제3세대의 어슐라 부랭원은 그녀가 창조적 자아의식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렌스키 가문의 세련된 지성과 부랭원 가문의 감각적 자연성이 어떻게 혼합되어 그녀에게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녀는 부랭원 집안의 따뜻한 생명력과 렌스키 집안의 모험적인 자기 확대 욕구를 두 세대의 부부관계를 통해 물려 받는다. 그러나 자아의식의 성취가 전통으로 전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처해있는 역사적 현실에서 스스로의 새로운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그녀의 자기실현 의식의 확립이 틈의 세대나 아버지 윌의 세대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그녀가 살아야 할 시대적 상황이 산업사회의 반인간적인 기계주의의 논리에 따라 인간생활을 조직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Ursula is the meeting point of several different strands in the Brangwen tradition, and her life is the one in which that tradition is exposed to the destructive forces of modern tradition.¹⁹⁾

19) Ronald P. Draper, *D.H. Lawrence* (Boston: Twain Publishers, 1964), p.70.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는 현대적 인물들이다. 그들은 교육수준이나 의식 수준도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두 남녀의 관계가 건강한 생명력을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갈망하는 자의식의 확립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의식의 발전과정을 추적해 볼 때 어슐라는 매우 정직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거짓됨으로 은폐되고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에 격렬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녀는 우주 안의 어떤 인간이나 사물도 그것 자체의 본성으로 남아 있을 때에만, 우주 안의 모든 개체에 편재해 있는 무한한 자기 발전의 의지를 실현시킨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것은 마아쉬 농장의 어머니들이 소망했던 '보다 고상한 형태의 삶'(higher form of life)이라는 자기 실현의 의지이기도 하다. 어슐라는 이 의지가 현재의 일상생활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피와 피의 교류'(blood intimacy), 즉 본능의 충족뿐만 아니라, 이지적인 교육과 탐구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삶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슐라에게 있어서 자기 실현의 성취에 대한 탐구 과정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남녀관계의 이상적 실현이라는 문제에까지도 직결되는 것이다.

어슐라가 추구하는 자아의 탐구는 단지 정신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녀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 뿐 아니라 교육에 의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갈망하며 동시에 그녀 내부에 존재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허위의식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관습의 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이는 로렌스가 말한 새로운 남녀관계의 정립을 모색하는데 있어 바탕이 되는 요소로, 기존의 남녀관계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능케 한다.

어슐라는 길이 없는 혼돈 속에서, 즉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도 어렵고 두

려운 상황,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창조의 연속이면서 미지의 세계에 이정표를 세우는 일임을 자각하고 그 무게를 의식한다. 다음 인용에서 볼 수 있는 어슐라의 고뇌에 찬 부르짖음은, 삶의 과정을 사회적 관행이나 타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기 실현적 창조 과정으로 볼 때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벅찬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무한한 자유의 고통인 것이다.

Why, oh why must one grow up, why must one inherit this heavy, numbing responsibility of living an undiscovered life? Out of the nothingness and the undifferentiated mass, to make something of herself! But what? In the obscurity and pathlessness to take a direction! But whither? How take even one step? And yet, how stand still? This was torment indeed, to inherit the responsibility of one's life. (p.283)



어슐라가 스크레벤스키를 만난 것은 새로운 자아의 주인공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욕구로 초조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스크레벤스키를 선택하고 사랑한 것은 그를 통해서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크레벤스키는 그녀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인물이며, 그는 처음부터 '자아'라는 것을 이미 제도적으로 확립된 질서 안에서 개인의 지배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 자기 실현의 의지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역사의식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그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한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그는 육체적

인 면 이외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자기 생각이라고는 없이 기존 가치관에 순응하는 인물이다. 그는 내면의 고유한 인격이 죽어버린 가운데 자신의 무자각적이고 타성화된 생활에 대해 아무런 회의도 없이 살아간다.

So Skrebensky left the girl out and went his way, serving what he had to serve, and enduring what he had to endure, without remark. To his own intrinsic life he was dead. And he could not rise from the dead. His soul lay in the tomb. His life lay in the established order of things. He had his five senses, too. They were to be gratified. Apart from this, he represented the great, established, extant idea of life, and as this he was important and beyond question. (p.328)

스크레벤스키의 삶은 기성질서에 이미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전체주의 속의 개인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고, 그의 영혼과 정신에는 관심이 없다. 인습화된 기성관념에 젖어서 개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의 의지가 마비되어 버린 그에게 어슬라가 미련을 갖는 것은 그녀의 허위의식 때문이다. 즉, 그녀는 상대방을 자기 세계를 확대시키고 자아의식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려 한다. 한편 스크레벤스키는 그녀와의 사랑이 육체적 욕망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판이한 견해차이가 그들 관계의 파탄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리비스는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새로운 인간관계 확립의 문제는 현대 사회가 직면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스크레벤스키의 치명적인 결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같은 집단 전체의 복지 증진이 그 집

단 내의 개개인들에게 자기실현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현대사회의 부정적 요소들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점은 그들이 처한 시대와 문명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직시하는 것은 곧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병폐와 개선의 방향까지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t is significant that the problems of personal relations as they are now dealt with involve explicit reference to the state or tendency of the civilization in which they are staged.²⁰⁾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의 사랑은 그 안에 이미 파괴적인 요소를 내포한 채로 시작되며,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지배욕이 자리잡게 되어 사랑의 순간에도 승리자와 희생물의 관계로 그려지게 된다. 이 두 남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은 낭만적인 연애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달콤하거나 황홀한 장면과는 거리가 멀다. 남자의 고집과 여자의 강한 의지가 팽팽히 맞서서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잔인함이 드러난다.

그녀가 삼촌 프레드(Fred)의 결혼 파티에서, 스크레벤스키와 환한 달빛을 받으며 춤을 추는 장면에서도, 달빛에 온몸으로 화답하는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검은 외투로 그녀를 감싸고 여자를 굴복시키려는 노력으로 잔뜩 긴장해 있다. 그녀는 여기서 강철 칼날 같이 날카로운 이미지로 묘사되고, 그는 그러한 그녀를 붙잡아 꼭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어슐라의 부모들이 난가리를 쌓는 장면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사랑을 했듯이, 그들도 같은 배경에

20) F.R. Leavis, p.163.

서 함께 있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생명력이 충만한 어슐라가 눈이 부시도록 휘황한 달빛을 맞으며 존재의 미의 극대화를 체험하는 것과는 달리 스크레벤스키는 난가리를 보고 공포를 느끼고 그녀를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의지에서 고집세게 여자를 안고 있다. 탈인성적 사랑의 구현은 어슐라의 경우에는 자기확대의 체험을 통해 가능성을 보이지만, 스크레벤스키의 위축된 모습은 문명사회의 부품으로 획일화되어 자연과의 교감을 잃은 그가, 거대한 우주적 생명력에 무감각하고 마비된 상태로 머물러 승화의 체험을 얻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그들의 입맞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고통과 부식, 말살의 의미를 띤 것이기 때문에, 한 순간의 정열이 사라졌을 때,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가 느끼는 공허감은, 달빛이 비추는 정감 있는 분위기에서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에서 위대하고 자기 초월적인 사랑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을 그들의 육체적 욕망이 거짓 사랑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d her soul crystallized with triumph, and his soul was dissolved with agony and annihilation. So she held him there, the victim, consumed, annihilated. She had triumphed: he was not any more. (p.322)

이때에 그녀는 스크레벤스키와 대조적인 인물인 사공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옛날의 부랭원 집안 사람들의 충만한 삶에서 오는 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슐라는 그 사공이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같이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따뜻함과 위안을 받는다. 이는 스크레벤스키가 주는 파괴적인 느낌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He gave her a pleasant warm feeling. He made her feel the richness of her own life. Skrebensky, somehow, had created a deadness round her, a sterility, as if the world were ashes. (p.316)

어슐라가 대학 강의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우주의 어떤 생명체도 기계적인 에너지의 작용이 아닌 무한한 우주와의 존재합일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룩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그녀의 의식이 자기 안의 건강한 생명력에 주목했음을 나타낸다.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생명력을 인식함으로써, 어슐라는 인간과 우주와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확대된 자아를 바탕으로 남녀의 관계도 바라보게 된다.

생명현상을 단순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의 복합체로 보는 교수의 의견에 대해, 어슐라는 그것이 영혼이 없는 비인간적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지가 엄연히 살아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자신이 된다'(to be oneself)는 것은 자아가 무한과 일체되는 완성을 이룩한다는 통찰을 가져온다.

이는 로렌스가 그의 에세이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v. The Social Consciousness'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의식은 분석과 비판을 주로 하며, 진실한 감정이 없이 정열적이거나 창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존재할 수는 없다(It can know, but it cannot be.)²¹⁾는 의견과 일맥 상통한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생명 질서와 유리되어 삶의 본래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물질만능주의적 사고와 지성편중적인 사고를 키우기 쉬운 현실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다음의 인용에서처럼, 무한(infinite)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자연(nature)으로 인간에게 생명력을 제공하는 모태가 된다.

21) D.H. Lawrence,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v. The Social Consciousness", *A Selection from Phoenix*, p.763

She only knew that it was not limited mechanical energy, nor mere purpose of self-preservation and self-assertion. It was a consummation, a being infinite. Self was a oneness with the infinite. To be oneself was a supreme, gleaming triumph of infinity. (p.441)

어느 바람이 부는 밤, 도회의 불빛이 멀리 보이는 거대한 떡갈나무 아래에서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가 육체적인 결합을 갖는 장면은 자연 속에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큰 우주적인 차원'을 내포하는 관계이다. 그녀는 밤이 강렬하게 진동함을 느끼며 어두운 바람에 실려 '불멸의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자신이 '변화없는 영원한 곳'으로 뛰어 들었고, '일상적인 자아' 외에 '어둠을 인식한 또 다른 보다 강한 자아'가 자기 안에 있음을 느낀다. 이제 그녀에게는 시간에 따르는 사회적 자아가 아니고 이 '영원한 자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인간내면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며, 자아와 그것이 속한 자연 질서가 살아있는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로렌스적인 사랑의 절정을 맛 본 것이다. 이 순간은 어슐라가 체험하는 탈인성적 사랑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탈인성적 사랑의 체험에서 인간은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초월을 이루게 되고 우주적인 질서의 일부가 되어 남녀의 사랑 행위를 통해 창조의 의지에 동참한다.

이것은 로렌스가 말한 '본능적 의식'(blood consciousness²²)이 어슐라를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이는 내면적인 자아의 핵심이 된다. 이것이 사회적 자아의 정신적 깨달음과 공존할 때, 비로소 본능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22) Marguerite Beede Howe, *The Art of the Self in D.H. Lawrence*. (Athens : Ohio University Press, 1977), pp.29-31.

혹은 그 반대로의 변화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당한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바깥 세상의 비평이나 가치관에 대해 그녀는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맞서게 되고, 결국 자기 존재의 지고함을 인식한다.

So lingering along, they came to a great oak-tree by the path. In all its budding mass it roared to the wind, and its trunk vibrated in every fibre, powerful, indomitable. 'We will sit down,' he said. And in the roaring circle under the tree, that was almost invisible yet whose powerful presence received them, they lay a moment looking at the twinkling lights on the darkness opposite, saw the sweeping brand of a train past the edge of their darkened field. Then he turned and kissed her, and she waited for him. The pain to her was the pain she wanted, the agony was the agony she wanted. She was caught up, entangled in the powerful vibration of the night. The man, what was he? -a dark, powerful vibration that encompassed her. She passed away as on a dark wind, far, far away, into the pristine darkness of paradise, into the original immortality. She entered the dark fields of immortality. (p.451)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계속 될수록, 그녀는 그에게서 얻지 못한 미지의 것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따라서 그녀의 애정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간다. 한편 그는 그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여자의 부속물이 된 듯한 패배감을 느낀다.

그러던 중, 그들은 서섹스의 작은 언덕 근처의 오두막에서 휴가를 갖게 된다. 언덕 꼭대기에서는 바다가 마주 보이고, 발아래 숲과 그 사이로 맹목적으로 달리는 기차가 보였는데, 어슐라는 기차라는 상징물로 대변되는 현대 문명의 자연 파괴와 근시안적 가치관에 비판의 눈을 뜨게 된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 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 잔디 위로 달려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며 별처럼 자유로움을 느낀다. 새벽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자 황금색으로 변한 대지가 고요하고 희망에 찬 모습으로 빛나고, 그녀는 그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린다.

그토록 아름답고 완전하며 순결한 아침에, 스크레벤스키는 자신이 믿어 온 문명의 가치관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에 매달리고 그녀의 경험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의 사랑체험에 이처럼 뚜렷한 한계가 따라다니는 것은 현대 문명이 인간 삶에 조건지워준 기계주의적 사고 때문이며, 이를 극복할 의지와 생명력이 그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어슐라는 스크레벤스키의 모든 것을 알아 버렸다고 생각되자 그에게 더 이상의 경이와 풍요한 두려움, 사랑의 존경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주위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에 떠밀려 상황은 약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녀 내부에는 자신이 결코 그와 함께 인도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은 분명했다.

링컨셔 해변에서 달빛을 받으며 그녀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한 것은 그의 속박을 벗고 자기 생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눈부신 달빛 속에서 육체적 관계를 갖지만,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이 없이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고통스런 투쟁일 뿐이었고, 결국 이를 계기로 그들의 애정관계는 끝이 났다.

어슐라가 스크레벤스키와 파혼한 후,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 그의 인격

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산책길에서 나타난 말떼는 환각이든 실제든 매우 역동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그녀가 걸어가는 소로의 나무그늘 밑에 말떼가 있었고, 그녀는 고개들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의 존재가 주는 중압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보지 않아도 말떼가 그녀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말떼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슬쩍 회피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그녀의 길을 막고 저만치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은 제어할 수 없는 생명력 자체를 상징하는 동물로, 자아의 추구라는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했던 어슐라가 자신의 자연적인 자아를 누르고 사회적인 자아에만 의지하려고 할 때에 표출된 자연적 자아의 폭발을 상징한다.

이어서 온 병고를 견디면서, 그녀는 자기 영혼의 밑바닥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스크레벤스키와 그의 세계로부터 자유가 되기 위해 투쟁한다. 그녀는 자기가 그 남자의 소유라는 강제적 집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비실제적인 고통이요,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그와 묶어 놓으려는 것은 그녀가 버려야 할 관습의 굴레였다. 그러한 깨달음은 자신의 속 알맹이만이 자유이고, 주위의 세계는 벗어나 내버린 옷과 같다는 느낌이 들게하고, 마침내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영원성의 세계를 인식하려는 창조의 고통으로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실체를 붙잡게 된 것이다.

Suddenly she knew there was something else. Some horses were looming in the rain, not near yet. But they were going to be near. She continued her path, inevitably. They were horses in the lee of clump of trees beyond, above her. She pursued her way with bent head. She did not want to lift her face to them. She did not

want to know they were there. She went on in the wild track. She knew the heaviness on her heart. It was the weight of the horses. But she would circumvent them. She would bear the weight steadily, and so escape. She would go straight on, and on, and be gone by. (p.487)

어슐라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관습의 틀과 과학의 논리로 조직화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그에 반항하고 일탈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엄청난 압력과 갈등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성 질서에 순응하기로 마음먹은 경우에는 조직의 논리에 개별성이 묻혀, 자기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상당 부분 빼앗기고 포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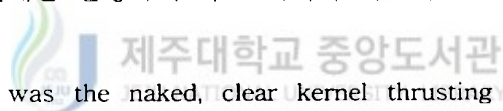
이것은 로렌스의 "Thinking of Oneself"에서 개탄해마지 않는 상황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의 실체를 직시하기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자기 안에 무슨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응시할 것(All you have to do is to look him firmly in the eye.)'²³⁾을 권한다. 자기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가 던지는 많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인생의 큰 기쁨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슐라가 치른 병고는 자기 삶과 자기 실체에 대해 정직하게 바라보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슐라는 자아와의 치열한 대결과 거듭나는 고통을 거침으로써, 무지개로 상징되는 새로운 삶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오직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한 그녀는 육체적 욕망의 만족을 찾는 것만으로는 개인 뿐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도 건강한 생명력과의 유대감이 얻어지지 않음을 알게 된다.

23) D.H. Lawrence, "Thinking of Oneself", *Phoenix*, p.736.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스크레벤스키는 한번도 그녀에게 부동의 진실이 되어 준 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육체적 욕망 속에서만 그녀와 일체가 되어 도취감을 맛 보게 해 준 존재였다. 그는 그동안만 일시적으로 어슐라가 창조해 놓은 존재였고, 그러한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그녀의 허위의식이 낳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어슐라를 에워싸고 있던 껍데기는 그 밖에도 많다. 그녀의 부모, 대학, 친구들, 유니프레드 잉거(Winifred Inger), 교사 생활등에서 그녀가 상처입고 회의하게 된 요소들은 바로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고 한계였다. 부모 세대의 폐쇄성은 그녀의 자아 실현 욕구를 사회에의 참여로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할 장애였고, 대학과 삼촌 톰이 갖고 있던 기계주의적 논리와 위선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성 파괴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격렬히 거부되는 것이다. 잉거와의 동성애적 관계는 그것이 갖는 부자연스러움이 어슐라의 건강한 생명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고, 교사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그녀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She was the naked, clear kernel thrusting forth the clear, powerful shoot, and the world was a bygone winter, discarded, her mother and her father and Anton, and college and all her friends, all cast off like a year that has gone by, whilst the kernel was free and naked and striving to take new root, to create a new knowledge of Eternity in the flux of Time. (p.493)

어슐라는 현대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기 됨이 무한의 빛나는 승리’(To be oneself was a

supreme, gleaming triumph of infinity.)라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 순간 벨도우버거리의 더러운 지붕 위에 솟아 있는 무지개는, 현대사회의 ‘공동의 최선’이라는 허위적 가치에 종속되는 부패한 질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창조적 의식의 주인이 되는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희망의 비전처럼 보인다.

And the rainbow stood on the earth. She knew that the sordid people who crept hard-scaled and separate on the face of the world's corruption were living still, that the rainbow was arched in their blood and would quiver to life in their spirit, that they would cast off their horny covering of disintegration, that new, clean, naked bodies would issue to a new germination to a new growth, rising to the light and the wind and the clean rain of heaven. She saw in the rainbow the earth's new architecture, the old, brittle corruption of houses and factories swept away, the world built up in a living fabric of Truth, fitting to the over-arching heaven. (pp.495-496)

그녀가 본 무지개는 그녀의 전 존재를 던져 구하고자 했던 진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건강한 남녀관계의 바탕이 되는 인간과 우주의 유기적 관계가 완성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어슐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3세대의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는 사과의 체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이다. 어슐라는 이전 세대보다 자기 실현 욕구가 강한 인물로, 이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한 개인이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모색으로 나타난다. 더이상 1세대의 따뜻한 생명력만으로

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시대에서, 그녀가 찾는 사랑은 자기자신에 대한 자각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일이다.

스크레벤스키는 공병장교로서, 군대라는 집단의 한 부품으로써의 자기자신에 만족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어슐라를 사랑한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때문에 이러한 그에게서 어슐라가 자기 존재의 확대를 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허위의식으로 인해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다.

만약 어슐라가 스크레벤스키와 결혼해서 안주했다면 이는 2세대의 애나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어슐라는 스크레벤스키의 기계주의적 사고와 그 불모성을 간파하고, 그와의 관계를 엮어매고 있던 관습의 틀과 자기의 허위의식을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 자기 안에 있는 생명력과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이 동질의 질서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녀가 본 무지개는 탈인성적 사랑의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무지개」에 나타난 '탈인성적 사랑'의 구현 양상들을 살펴 봄으로써 로렌스적인 사랑의 의미가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에서 극대화될 수 있음을 알아 보았다. 로렌스는 이지적인 인간의식의 제한성을 깨닫고, 인간의 의식 너머에 존재하는 더 큰 미지의 세계, 즉 우주적인 자연질서에서부터 인간의 애정욕구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했다.

로렌스에게는 램프로 밝혀진 원 모양의 좁은 의식 세계는 물론,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역까지도 인간의 존재 가능성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확대의 궁극에 탈인성적 사랑의 우주적 생명력이 구현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어떤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존재질서를 믿었을 때, 그 자신이 그 큰 질서의 일부가 되어 존재하게 됨을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는 남녀의 사랑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승화된 순간들을 포착하여 자연계의 여러 현상을 인간 체험의 영역으로 동질화시키는데 상징적으로 사용하였다.

This world in which she lived was like a circle lighted by a lamp. This lighted area, lit up by man's completest consciousness, she thought was all the world; that here all was disclosed for ever. Yet all the time, within the darkness she had been aware of points of light, like the eyes of wild beasts, gleaming, penetrating, vanishing. And her soul had acknowledged in a great heave of terror only the outer darkness. (p.437)

「무지개」에서 드러난 로렌스의 인간 탐구영역은 개인의 의식의 차원

뿐만 아니라 남녀의 관계와 우주적인 질서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인간
간의 애정 욕구의 근원인 우주적인 질서와 동소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체험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그것을 통해 개인의 자아가 보다 큰
의미로 확대된다.

If we think about it, we find that our life consists in
this achieving of a pure relationship between ourselves
and the living universe about us. This is how I "save
my soul" by accomplishing a pur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another person, me and other people, me and a
nation...²⁴⁾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 순수하고 완전한 균형상태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주인공들의 삶이 갈등의 연속선 상에 놓이게 되는 것도 이 때문
이다. 사랑하는 두 남녀는 개인 의식의 완전함을 유지하면서 상대와의 관계
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은 탈인성적 사랑의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다. 자기중심적 지배관계를 강요하거나, 육체적 욕망의 탐닉에 빠져 창조적인
자기 실현 의지를 상실할 때 파괴적인 남녀 관계로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관계에서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영
혼의 충동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자아의 확립을 갈망할
때 가능해지며, 또한 이러한 열린 시각으로 상대의 개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두 존재의 합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부랭원 집안의 3대의 사람들은 '보다 고상한 형태의 삶'을 위해 자신의
환경에서 노력했다. 그러나 자아의식의 확립과 보존을 이루기까지는 개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허위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
했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순수한 관계 정립은 사회적 자아와 무

24) D.H. Lawrence, "Morality and the Novel", *Phoenix*, p.528.

의식의 영원한 자아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 가능했다.

틈은 자연과의 교감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의 생명력에 충실한 모습으로 리디아의 시들었던 자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의 배경과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합일의 순간들을 만들어 탈인성적 사랑을 구현해 낸다. 그들의 애정은 미지의 세계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흡인력과 저항감을 동시에 느껴, 역동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명 현상의 본질을 양극적 원리 사이의 부단한 투쟁으로 이해했던 로렌스의 생명관²⁵⁾을 충실히 그려내고 있다.

월과 애나는 육체적 관계에서는 만족을 얻었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함으로써 진정한 창조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월의 미숙한 자아의식 때문이며, 애나에게 의존하려는 태도에 기인한다. 애나 또한 상대방의 개인적 한계를 짐스러워 했을 뿐, 그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한 투쟁의 과정을 포기하고 아이 기르는 일에 머무르게 된다. 결국 절반의 실패는 탈인성적 사랑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을 관계 전체의 어긋남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승리자 애나는 자기 안에 갇힌 패배자 애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일원으로써 월에게 결핍되었던 '당당하고 창조적인 자아'는 어슐라에게 와서 그 심지가 굳건해 졌으며, 비록 스크레벤스키와는 그의 전체주의적 사고와 기계론적 속성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앞으로의 사랑 체험에서는 따뜻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우주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탈인성적 사랑이 가능하리라는 잠재성을 보여 주었다. 어슐라의 자기실현 과정은 자기를 둘러싼 온갖 허위를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잉거선생이 보여준 지식 지상주의와 물질주의적 사고에 회의를 느끼고, 동성애적 관계의 파괴성을 깨닫는다. 또한 삼촌의 광산에서 한날 부

25) 양영수, 『로렌스 문학의 해부』 (한신 문화사, 1994) p.72.

품으로 전락해 버린 광부들의 모습을 통해 산업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한 과정을 겪고나서 스크레벤스키와 다시 만나자 집단주의에 매몰된 그가 갖는 자아의 불모성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남녀의 애정관계라는 인간의 원초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통해 현대인이 빠져 있는 기계문명사회라는 궁지에서 제기되는 삶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로렌스가 생각하는 창조적인 애정관계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실현이라는 개체적인 욕구와 인격적 상관관계인 사랑의 의지 사이의 살아있는 유기적 연관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자기 삶의 수평적 영역의 확대이다. 동시에 인간의 영혼은 어둠과 빛의 고향인 '우주적 생명력'에 일치하는 순간을 맞보려는 수직의 상승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탈인성적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 된다.

따라서 로렌스의 애정관에서 남녀 개인의 육체적 사랑이 강조되고 이를 통한 보다 큰 우주적 질서로의 자아확대인 탈인성적 사랑을 논하는 것은 기계문명 속에서 왜소해진 인간 본연의 본능적 욕구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지나친 기계주의와 지성주의를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건강한 자아는 자기실현 욕구뿐만 아니라 피와 피가 통하는 따뜻한 사랑에 의해 자연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지개』에 나타난 주인공 남녀들의 '탈인성적 사랑'은 각자의 자기실현에 충실하면서 상대방이 속하는 미지의 세계를 만나고, 그 미지의 세계를 계속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보다 큰 자연과 만나는 순간에 구현되는 것이었다. 그 순간의 자유와 순수함과 기쁨이 씩씩한 맛으로 변질되는 것은 인간 본성을 억압하는 문명사회의 기계적, 폭력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부터였다. 현대 문명사회의 존재 불안에 대한 로렌스의 진지한 대안은 남녀간의 탈인성적 사랑의 구현을 통한 생명력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Bibliography

1. Texts

Lawrence, D.H. *The Rainbow*.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9.

_____ *Fantasia of the Unconscious and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5.

_____ *D.H. Lawrence: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A.H. Ingli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9.

_____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H. Lawrence* ed. Edward D. McDonald.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80.

2. References

Clarke, Colin. ed. *D.H. Lawrence: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69.

Daleski, H.M.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H. Lawrence*.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87.

Draper, Ronald P. *D.H. Lawrence*. Boston: Twain Publishers, 1964.

Ebbatson, Roger. *Lawrence and Nature Tradition*.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0.

Hochman, Baruch. *Another Ego: The Changing View of Self and Society in the Work of D.H. Lawrence*.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70.

Hough, Graham. *The Dark Sun: A Study of D.H. Lawrence*. New York:

- Octagon Books, 1973.
- Howe, Marguerite Beede. *The Art of the Self in D.H. Lawrence*.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77.
- Leavis, F.R. *D.H. Lawrence: Novelis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81.
- Moore, H.T. (ed.).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New York, 1962.
- Schneider, Daniel. *D.H. Lawrence: The Artist as Psychologist*. Kansas, University of Kansas, 1984.
- Spilka, Mark. *D.H. Lawren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 Yudhishtar. *Conflict in the Novels of D.H. Lawrence*. New York: Barnes and Noble, Inc., 1969.
- 김 정 매. 「어둠의 불꽃-로렌스 문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 김 대 균. 「D.H. Lawrence의 현대 산업 문명 비판적인 사상」.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5.
- 김 신 희. 「D.H. Lawrence의 소설에 나타난 이상적인 인간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1.
- 박 찬 부. 「D.H. Lawrence의 이원론적 생명관과 문명」.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5.
- 박 창 도. 「D.H. Lawrence연구- 자아의식의 확립을 위한 갈등의 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 백 낙 청. 「소설 「무지개」와 근대화의 문제」. 『영미어문학총서D.H.로렌스』. 민음사, 1979.
- 양 영 수. 「로렌스 문학의 해부」. 한신 문화사, 1994.
- 양 영 수. 「D.H. Lawrence의 「사랑하는 여인들」에 나타난 현대문명 비판」.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39집, 1994.

장 박 원. 「D.H. Lawrence의 소설에 나타난 종교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Abstract>

Impersonal Love in *The Rainbow**

Kim, Young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Soo

D.H. Lawrence's *The Rainbow*, deals with love affairs between men and women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ir creative lives, for love is not only a personal incident but can be interpreted as an impersonal experience in the great order of nature or the universe. Impersonal love reveals itself when a man and a woman feel the oneness in their love, and at the same time recognise the other's unknown world as it is. Through this love, human beings can reach the life force of nature and fully accomplish their own desire to be oneself.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

Tom and Lydia understand each other's needs and attain the elation of impersonal love in the sureness of a natural life, in spite of their basic foreignness. However, Anna and Will fail to achieve impersonal love for Will's lack of self-assuredness. Anna gives up searching for her own creative self and remains satisfied in the motherhood of her children. Ursula tries to seek her right position in the modern civilised society and eventually she comes to realize that to be oneself truly, it is important to feel the oneness with the infinite order. She refuses Skrebensky's mechanical way of thinking and other lifeless customs of modern society.

In *The Rainbow*, Lawrence thought over the mechanical human conditions in the modern civilisation and suggested impersonal love between men and women as the solution of human isolation.

